



< 녹취문 >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박중근(전 동양화학 실험과 근무)		
면담자	송미정	면담지원자	이혜숙
면담일시	2025. 08. 14.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1실
녹취문 작성자	송미정	회차	1회차

1. 시작멘트: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10:08~00:10:40)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박중근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8월 14일 목요일이고, 장소는 학산문화원 동아리 1실입니다. 면담 진행은 송미정이 하겠습니다.

2. 동양화학 포스터 배경에 대한 설명(00:00:29~00:10:07)

구술자: 동양화학 이게 과거에 있던 사진이고요. 여기가 타워라고 해서 여기에 석탄하고 석회석 그걸 넣고 1000도 C이상에서 가열하여 거기서 발생되는 CO₂ 있죠. CO₂하고 소금물하고 반응시켜서 Na₂CO₃ 라고 하는 소다에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쪽 플랜트에서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성소다 NaOH라고 해서 강알카리성. 강한 알카리성이 만들었고 또 거기서 나오는 HCl 이것이 강산성이예요. 염산을 만들었던 그 플랜트 들이예요. 이게 다. 그리고 이쪽이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라고 해서 그거를 만들었던 플랜트 같아요. 지금 연구실에 있던 것은 이쪽 방면 같아요. 이쪽 같아요.

여기 사진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벌써 50년 전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술자: 그리고 여기서 주로 나왔던 제품은 원료 석탄 석회석 소금인데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녹여서 바닷물에 있는 소금 NaCl하고 같이 섞어서 했던 것이 이 플랜트의 주 목적이었고 여기에 짓게 된 이유가 그 60만 평 그 갯벌을 막아서 거기서 나오는 바닷물을 증류시켜서 그 바닷물을 소금의 염분을 좀 더 강하게 해서 그거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여기에 원료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소금하고 바닷물을 섞어서, 여기서 이게 타워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마플퍼네스라고 해서. 타워에서 석탄하고 석회석을 섞어서 뭐야 Na_2CO_3 .
소다에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가지고 NaHCO_3 중조라고
하죠. 옛날에 그 소화 안 되면 먹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원자: 선생님 아까 이 건물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는지 잘 발음이 어려워서
그전에 영문이셨는데

구술자: '마플 포나스' 나 '마플 포네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다 타워인데 그때 그 석탄하고 석회석을 넣고서 분리 시켰던 그런

지원자: 여기에 이렇게 다른 게 들어 있는 거예요.

구술자: 태워서 열로 연기를 빼고

지원자: 그럼 여기는 보관이 아니고

구술자: 플렌트죠. 그거를 구웠던 거죠. 저기 소켓으로 굽고

지원자: 이게 재료들이 보관돼 있고 어딘가에 합쳐서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재료들이
따로따로 보관돼있고

구술자: 아니요. 보관돼 있던 거는 이 앞에 지금 이게 앞에 이제 철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거꾸로 뒤에서 촬영한 건지 저쪽에서 전면에 촬영한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저 뒤에 있던 것도 뭐가 모르겠어요.

지원자: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가 있는 거 보니까.

구술자: 아니요. 인천항이 거기까지 갔나 제가 이걸 생각할 때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저기 뭐야
현재 (그때는 개발이 안되었을꺼예요) 저 인천대교로 해서 그 영종도로 가는 지선이 아닌가
생각돼서요.

면담자: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구술자: 가만히 있어 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지원자: 일단은 뭐 이렇게 방향에 대한 건 다 하셔서 괜찮아요.

면담자: 안녕하세요. 본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3. 개인신상(00:10:41~00:12:11)

구술자: 예 안녕하세요?

면담자: 어저께 비 많이 왔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으셨는지

구술자: 어제 오고 싶었는데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연기했어요.

면담자: 네 그러니까요. 집 앞에 그 천이 범람해 갖고 차가 못 지나간다고 저도 들었을 때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구술자: 아니요. 갑자기 오니까 이 좌석 버스고 시내버스고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물 차는 데가 아닌데 물이 차서 갑자기 연기했죠.

면담자: 네 그래도 선생님 네가 아무 탈이 없었으니 다행이네요.

구술자: 없습니다.

면담자: 네 그럼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 하시면 질문에 답 좀 해 주시고요.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구술 기록을 위해서 선생님 성함과 생년월일 출생지 등 말씀 해 주세요.

구술자: 이름은 박중근이고요. 1949년 8월 15일 생이고요.

고향은 충남 당진시 우강면입니다.

면담자: 이번 구술 기록에 참여해 달라는 섭외를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구술자: 50년 전에 기억을 떠올리게 돼서 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4. 학창시절과 동양화학 입사(00:12:12~00:18:13)

면담자: 충남 당진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그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서 학창시절이랑 인천에 어떤 이유로 왔는지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구술자: 제가 당진 고향에서 우강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합덕중학교라고 하는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저희 집안 할아버님이 과거에 한의원을 하셔서 그래도 부유했어요. 해서 인천으로 이제 유학 온 거죠. 그 당시에 우연하게 인천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쳤는데 합격해서 인천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됐죠.

면담자: 인천으로 유학을 오신 셈이잖아요. 그때 당시 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니면은 인천으로 유학을 왔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가요?

구술자: 예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5km를 걸어 다녔고 중학교 때는 9km를 통학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송림 3동에서 하숙했는데 저희 고등학교가 배다리에 있었어요. 과거에 인천 고등학교가 배다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송림 3동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2.5km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9km 걸다가 2.5km 다니니까 이 학교 다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다녔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지원자: 걸어서 얼마 정도 걸리신 거예요?

구술자: 그러니까 걸어서 고등학교까지 한 15분에서 20분

면담자: 동양화학에 입사하게 된 동기나 계기 그런 것도 얘기 해 주세요.

구술자: 제가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학교에 권석명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시간 강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부공장장이니까 제가 휴학하면서 찾아 뵙고서 그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또 흔쾌히 채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실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동양화학 연구과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실험 기자재하고 최신 실험 기기



MRA라든지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그 실험 기자재가 있던 그런 아주 우수한 실험실이었어요.

면담자: 인천에 올라오셔가지고 동양제철 출근을 하시면서 독쟁이고개 인하대 후문 쪽에서 자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동양화학 회사 출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다니시고 그 주변은 어땠는지.

구술자: 워낙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먼 길을 통학하게 했으니까. 뭐 한 2~3km밖에 안 될 거예요. 걷는 거는 자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뭐 동양화학 걸어 다니는 건 아주 쉬웠어요.

면담자: 출퇴근하실 때 걸어 다니셨으면은 그 주변에 환경이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독쟁이고개에서 동양화학까지 걸어오시면서 주변에 뭐 기억나시는 것들은 없으셨는지

구술자: 그 주위에 있던 것이 인하대학 인하공대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하는 그런 점포가 많이 있었죠.

면담자: 그리고 다른 거는 뭐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그 주민들하고는 좀 어떻게 소통을 하셨어요?

구술자: 주민들하고는 소통할 일은 별로 없었고요. 그냥 뭐 열심히 다녔으니까 소통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특별히 나는 건 없어요.

지원자: 월급 받으시면 저축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구술자: 처음에 첫 월급 타서는 부모님한테 선물했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로는 저축했던 기억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은 했겠죠. 근데 뭐 얼마 했다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면담자: 월급을 타거나 하셨으면 그래도 외식이라는 거를 좀 한 번 하셨을 텐데 그 주변에 잘 가셨던 식당은 없으세요? 이름 같은 거 기억나는 거

구술자: 그런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5. 동양화학 중앙연구소 연구원이 되다(00:18:14~00:40:02)

면담자: 동양화학에 입사하여서 연구실로 첫 출근을 하신 거잖아요.

업무는 어떤 업무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작성하는 것이 첫째였고 실험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석탄이라든지 석회석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올리고 또 가성소다라든지 소다회. 그 분자식이 Na_2CO_3 인데 거기에 대한 순도 이런 걸 측정하고 또 염산 또 가성소다 또 PVC 이런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올렸던 것 같아요.

면담자: 동양화학 중앙연구소는 1983년에 설립한 기록이 있는데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기억이 어떠신지

구술자: 제가 퇴사하고 나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고요. 그 중앙화학 연구소라고 해서 그 아주 우수한 석박사들이 많이 거기를 지원했다고 들었어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연구를 했죠. 나중에 들은 얘기에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중앙화학 연구소는 없었고 그냥 연구과 연구실 있어서 거기에 있던 그 멤버들이 아주 화합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담자: 연구실에서는 보통 몇 명 정도가 있었어요.

구술자: 한 30~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연구원들이

면담자: 입사하고 실험실 업무를 보시면서 그 환경이 어땠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구술자: 그 몇 안 되는 실험 기자재하고 대형 연구시설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그리고 무기화학 유기화학 분야를 주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또 고분자 연구소라고 해서 플라스틱 PVC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말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실험했던 기억이 나고, 또 거기서 했던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석탄을 분석을 해요. 석탄 분석을 하게 되면은 마플 포네스라고 해서 이제 그 소각로가 있어요.

이제 그 로에 놓고서 태우면은 옛쉬라고 해서 이제 재만 남아요.

재만 남으면 그거 체크하고 그러니까 휘발분 탄소 해서 그 성분을 분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원자: 회사에서 사용한 것은 순도가 아주 높은 탄을 썼을 것 같은데

구술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왔던 철암이라든지 무슨 뭐 석탄들이 있죠. 우리가 순도를 체크를 해요. 해서 휘발분이 많은 것보다는 탄소, 왜냐하면 소다에씨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성분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성분들이 많은 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했던 것 같아.

지원자: 그럼 우리나라에 탄광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탄광 회사별로 하시고 외국 것도 혹시 연구하셨나요?

구술자: 외국 거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많았고 철암이라든지 하는데.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철암탄광. 외국에서 수입했다는 거는 언뜻 북한에서 왔다고 하는 거는 들을 것 같기도 한데, 중국에서도 왔다는 것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확실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런 석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휘발분이 많은 것보다는 탄소 양이 많은 거, 석탄 중에도 유연탄이 있고 무연탄이 있어요. 유연탄은 휘발분이 많은 것이 유연탄이고 무연탄은 휘발분이 적고 탄소 양이 많은 것이 무연탄이에요.

면담자: 그리고 그 시약은 어떤 걸 연구하실 때 사용하셨어요?

구술자: 실험실이 크니까, 또 유기화학 무기화학에서 다 나오는 필요한 시약 있죠. 제품 생산해서 나오는 제품을 실험도 해야 되니까 그 시약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에 있던 그 시약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약 중에서는 그냥 일반 시약, 1급 시약, 특급 시약이 있어요. 특급 시약은 순도가 99.999%. 특급 시약은 주로 독일제나 일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약 중은 거의 1급 시약 수준밖에 안 돼요. 일반 약품 단가가 100원이라고 하면은 1급 시약은 천 원이에요. 근데 특급 시약은 한 50년 전 가격으로 보면은 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는 100만 원이 넘겠죠. 그렇게 차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에 근무하면서 그거를 많이 연구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플렌트를 연구할 때, 플렌트를 실제 설치하려면 자본하고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못하고, 시약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원료만 있으면 그걸 재생하는 건 가능하다 해서 많이 연구하고 실험했던 기억이 나요.

면담자: 기술 가치 증대 산업, 신사업 발굴을 통한 비전을 제시 같은 걸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제품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까요?

구술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시약들을 연구 많이 해서 제가 나올 때쯤에서는 시약들이 거의 특급 시약 수준으로 향상시켰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제품화 하지 못했어요. 제품화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증받는데 그 인증받는 것이 무척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인증 기관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미제도 거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독일제 일제만 특급 시약으로 인정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지원자: 그러면 퇴직 후에라도 인증을 받았다거나, 혹은 이게 제품화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수출을 했다거나 그런 이야기 들으신 건 없으세요?

구술자: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못했고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할 때 그걸 같이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중앙화학연구소가 설립되고 나서는 워낙 석,박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약간 빛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면담자: 실험 결과 가지고 현장하고 연구실하고 오가면서 개선도 하고 생산 라인을 확인하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 결과가 있었는지요?

구술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의 불량률이라든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안 좋을 때 현장 가서 그 원인이 어디 있나를 체크했던 것 같아요.

체크해서 현장 책임자들과 연구실 담당자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그거를 개선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동양화학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그 무기화학 분야하고 유기화학 분야가 많았어요. 근데 그 무기화학 분야하고 유기화학 분야가 양분된 이유는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이 달랐어요.

무기화학은 소금하고 석회석하고 석탄하고 넣고서 나오는 제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다에씨, Na_2CO_3 의 제품은 주로 판유리라든지 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 많이 납품을 했고, NaOH 이게 양잿물이라고 해요. 양잿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염산분자식 HCl 염산은 강한 산성으로서 옷에만 묻어도 옷이 막 타요. 이런 것들이 주로 무기화학 제품이었고 유기화학 제품 중에서는 PVC가 있었는데 이거는 직접 동양화학에서 생산을 했어요.

또 폴리비닐 크로라이드가 아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고분자 화학물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느라고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실험하는 것이 물성 실험이라고 해서 탄성 탄력이 얼마나 있는가, 또 인장 강도로 해서 얼마나 끊어지는가, 또 그 불순물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실험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제 PVC는 폴리비닐 크롤라이드라고 해서 CH_2CLCHCL 인데 이것이 중화학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그런 체인으로 연결돼서 분자식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제품이 나오니까. 이 제품 중에서도 뭐를 체크했냐면은 제품 중에서 불순물이 있는 게 있어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약간 그 잘못된 게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끼요. 그것(불순물)이 있으면 제품 전체가 다 못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근데 거기에 티가 들어갔다든지 하면 그걸 못 쓰잖아요.

지원자: 불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술자: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PVC도 그런 불량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비닐 있죠. 비닐로 해서 그걸 갖다가 만드는 건데 그 비닐 제품 만드는데 거기에 뭐가 낀다든지 하면 이게 불량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험을 많이 했어요. PVC를 만들 때 자체에서도 그런 불량품이 발생했어요. 발생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폐기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싸게 판다든지 했던 것 같아요.

지원자: 원재료를 여기서 만들었던 말씀이신 거죠? 원재료 만들어서 그거를 비닐 봉투 만드는 공장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구술자: 그렇죠. 여기서 소금물을 분해 하잖아요. 분해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시엘 폴리비닐 크롤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크롤라이드가 이 소금기의 시엘. 그리고 이제 CH_2CL 이런 거는 유기화학이거든요. 그런 제품을 분해해서 그 CL하고 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합성시켜서 그 PVC를 만들었죠. 그걸 동양화학에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무할 때가 50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걸 만들어서 출하했죠.

면담자: 지금하고 달리 그때는 자동화나 최첨단 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때 업무 보실 때 많은 갈등도 있었고 힘드셨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구술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제품 자체라든지 실험실, 플랜트는 그래도 전부 외국에서 차관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 플랜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량률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재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회석의 함량이 적다든지, 아니면 석탄이 들어왔는데 유연탄이 섞였다든지 하면은 그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소금 가져왔을 때, 소금이 옛날에 암염도 들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암염 속에는 불순물이 예사이라고 해서, 히리카 이런 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있으면은 아마 불량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염도 쓰긴 했던 것 같은데, 천일염을 많이 썼던 것 같고 해서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동양화학 그 앞에 풀장이 있던 것도, 소금물을 바다에서 증발시키면 소금이 그만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막았던 것 같고, 그 바닷물을 끌어서 제품 생산에 썼던 것 같아요.

면담자: 근데 옛날에는 최첨단이라도 지금보다는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실험하면서 위험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구술자: 거기서도 약간의 사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큰 사고는 아니고, 아주 자그마한 폭발 사고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근무할 때 실험 기구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첨단 기구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은 어디에 가더라도 환영받을 정도의 실력을 쌓았던 것 같아요.

면담자: 연구실에서 근무하실 때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구술자: 거기에서 최원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조영애라고 하는 분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혀 표가 안 났어요. 연애했다는 티도 안 나고 근데 나중에 최아무게 달이라고 하는 한 저보다 한 서너 살 위 먹은 사람이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왔는데 목에다가 키스 마크를 빨갱게 해서, 그냥 아주 빨갱게 하고 왔어요. 와서 전 직원들이 그 사람을 축하를 해줬어요. 축하해 주고 박수 쳐주고서 그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분 한번 또 만나보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했는데 어땠냐고

지원자: 사내에서 결혼을 하면 회사에서 어떤 축하의 행위 같은 건 없었나요?

구술자: 저 있을 때는 결혼한 커플이 없었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저도 좀 대시하고 싶은 분은 있었는데 또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6. 복지에 관하여(00:40:03~00:43:15)

면담자: 동양화학 당시 연구원의 급여나 복지 지원 같은 거는 어땠어요?



구술자: 주로 비교되는 것이 인천 판유리하고 비교가 됐는데 판유리보다 급료가 약했던 것 같고. 급료는 전반적으로 좀 약간 적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근데 뭐 워낙 짧으니까, 별로 돈을 많이 안 쓰니까.

면담자: 새인천 풀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새인천 풀장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아니면 거기서 그 앞에 저수지 같은 데서 망둥어 낚시 같은 거를 낚시를 하면 어떤 게 잡혔는지.

구술자: 그 앞에서 낚시하면은 송어 있죠. 송어가 잡힌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망둥어도 많이 잡혔어요. 제가 바닷가에 살아서 수영을 잘하니까 거기는 많이 갔어요. 수영 잘하니까 거기 가서 아주 즐겼던 것 같아요.

면담자: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가족 단위가 많이 왔는지 아니면은 싱글들이 많이 왔었는지

구술자: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새인천풀장이라 해서 지금 다른 데 풀장보다 시설은 별로였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 오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원자: 저는 가족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송도하고 새인천하고. 근데 송도가 좀 더 멀었잖아요.

구술자: 송도는 거기에 해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변이 없고 그냥 바닷물 막아서.

지원자: 그래서 집에서 아예 속에다 수영복을 입고, 겹옷 간단하게 입고 가서 겹옷만 이렇게 벗어서 가방 속에 딱 넣어놓고 오빠들하고 언니들하고 같이 놀고. 씻거나 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그 옷 다시 입고 집에 와서 샤워했던 기억이 나요.

구술자: 예예 그럴 수밖에 없죠.

면담자: 그때 당시 직원 식당이 있었는데 직원이 거기를 상당수 많이 이용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급식에 대해서 만족하셨는지?



구술자: 글썄 젊으니까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대로 그냥 만족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기억은 없어요.

면담자: 동양화학에 근무하시면서 주변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셨잖아요.
기억나시는 곳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조개고개라든지 아니면 학익천, 호미마을, 아니면은 호미마을에 있던 식당 같은 데. 그런 거 기억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7. 동양화학 인근 주변과 퇴사후의 이야기(00:43:16~01:16:20)

구술자: 조개 고개는 기억이 나고요. 또 학익천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그건 복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개고개는 진짜 조개 껍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동양화학에서 송도 가는 쪽에 있던 것 같은데 거기는 기억이 나요.

지원자: 사람들이 조개를 잡아서 먹으면 거기다가 많이 버려서 이렇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구술자: 그렇겠죠. 굴이라든지 조개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동양화학 우측에서 송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아마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지원자: 전 기억이 없어서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굴껍질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게 있는 걸로 알거든요. 부서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거기 있었던거는 아닌거군요

구술자: 근데 그 굴껍질도 달걀 있지 않습니까? 닭 사료에 그걸 뺏아서 주면은 거기에 주성분이 탄산칼슘 있죠. 이게 있어서 그 닭이 알.

지원자: 껍질이 단단해진다고

구술자: 생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많이 쌓여 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발전되니까 그게 다 없어졌겠죠.

면담자: 동양화학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퇴사한 계기나 이유를 여쭙봐도 될까요?

구술자: 예제가 그 동양화학 근무하면서 언어 수준이 제가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더 해야 되겠고, 퇴사하고 나서 더 좀 공부하자 그래서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면담자: 퇴사 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무할 때 동료들과 교류는 어땠는지 이렇게 그런 것도 이야기 해 주세요.

구술자: 다시 대학 복학해서 졸업하고 나서 화학회사에 한 10년 근무했어요.

10년 근무하고 나서, 1985년도에 제가 목동 아파트에 가서 중개 사무소를 했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벌었냐면 분양하면은 그 단지별로 미분양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분양을 한 5~6개월 후에 다시 또 재분양을 해요.

목동 사업 단지에서 그걸 선착순으로 해요. 하면은 거기에 새벽부터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저희가 줄을 서기도하고 아줌마들한테 한 5십만 원 정도 주고서 그 줄을 세웠죠. 그 딱지를 10개 정도를 잡아요. 잡아서 한 4~5개월 후에 팔면은 개당 5백만 원이 남아요. 그럼 10개면 5천만 원 아니에요. 그리고 중개업소 하면은 손님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쫓아버려요.

그러고서 한 달에 한 3천에서 한 5천만 원 벌었어요.

그때 워낙 많이 벌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별 다른 직업이 생각 안 나더라고요. 화학회사 한 10년 근무했는데 별로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빛을 못 봤어요.

면담자: 그러면은 부동산 쪽으로 완전히 일을 바꾸신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학 쪽에 근무하셨던 때하고 비교했을 때 미련이나 이런 거는 없는지.

구술자: 지금도 화학을 할래 부동산을 할래 하면은 아마 부동산 개발 쪽으로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발해서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요즘은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힘들긴) 한데, 그런 걸 잘 하면은 그런대로 돈 벌 기회는 있어요.

면담자: 그럼 후회는 없으신 거네요.

구술자: 후회는 없어요. 그 대신 한 가지 후회가 욕심을 부려서 제때 팔지 못해서. 팔 건 많은데.

지원자: 고점에 파셨어야 되는데

구술자: 근데 지금은 최저점이거든요.



지원자: 그래서 아직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구술자: 많이 있죠.

지원자: 두 번째 들어가신 화학 회사는 상호명이 어떻게 돼요?

구술자: 삼영화학이라고 해서 저기 있어요. 처음에는 계장. 과장이었는데. 이게 회사가 크질 못하더라고요.

지원자: 그러면은 동양화학에서 3~5년 계셨고 삼영화학에서 5~6년 계셨고.

구술자: 옆에서 자꾸 누가 또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서울대나 연대 정도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때려 치웠죠.

지원자: 연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대우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았네요

구술자: 연구원이라고 해도 박사나, 어디 가서 대학에서 강의할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실력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원자: 초보 연구원들은 아무래도 대우가 약하고요.

구술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석박사도 지금은

지원자: 흔해서

구술자: 별로 빛을 못 봐요. 외국서 워낙 공부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지원자: 그런 이야기가 또 있네요.

면담자: 동양화학 자리에 철거가 되고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잖아요.

도시가 급격히 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술자: 글썄요. 동양화학 앞에 갯벌이 60만 평.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60만 평이래요. 그 앞에 막은 갯벌이 과거에 동양화학이 설립되고 나서부터 거기를 자리 잡아서, 이회림 회장이 막아서 소유했어요. 동양화학 법인으로 했는데 예전에는 그 땅이 거의 헐값 아니에요. 근데 지금 60년~70년 지나서는 지금 거의 다 대지화 됐어요. 60만 평이 갯벌이 대지화됐죠. 그걸 볼 때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동양화학, oci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도 아주 튼튼한 회사예요. 그리고 갯벌이 옥토가 되는 걸 보면서 '이런 안목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죠. 거기 지나갈 적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갯벌이 이렇게 대지가 돼서 아마 한 500만 배 내지 천만 배 뛰었을 거예요. 가격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죠.

지원자: 특히나 또 공인중개사 업을 하시다 보니까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셨을거 같아요

구술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동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돈 번 걸 가지고서 전부 부동산 땅 같은 거, 돈 될 만한 거 샀으면은 아마 저도 재벌은 아니어도 준재벌까지 됐을 것 같아요.

면담자: 동양제철화학에 대해서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구술자: 동양제철화학이,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없어졌다 하니까 좀 서운하긴 해요. 한데 또 그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대단지 공업 단지가 그 택지화되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해서 도시화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걸 보면서 세상 다시 또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장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원자: 공장 지대가 변하는 거는 당연히 세월에 따라 변하는 건데, 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지원자: 그래야 그 근처에서 살게 되니까. 근데 미추홀구가 유난히 공장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이전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가 공장 지대인 거를 알고, 아파트 지었을 때 왔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맨날 공장 이전하라고 민원을 많이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처에 아직 공장이 남아 있는 회사분들 얘기하시는데, 자기들은 어떻게든 매년 덜 나가게 하려고 저감 장치 다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도 계속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간대요. 회사 존폐를 걱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일할 곳도 필요한 곳인데, 인천이 어떻게 다 주거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살면서 일해서 구의 재정이라든가 시의 재정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너무 공장을 다 쫓아내는 것 같아요. 요즘 다 저기 충남 쪽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서산 쪽으로 이사 가고 그런 게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구술자: 남동공단 있잖아요. 남동공단은 원래 공단으로 설정돼서 폐수 처리도 다 하고 하는데 지금 동양제철화학 자리는 처음부터 저기 했던 것(안했던 것) 같아요. 바다 막아서 했던 자리라서. 그 주위에 그 큰 공장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갑죠. 또 항상 공장이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분들은 피해는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해야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면담자: 맞아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이기적으로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술자: 그러게 말이에요

면담자: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원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여기 근처가 아무래도 회사가 많으니까 학생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저희 언니 오빠는 학익초등학교를 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나이로, 들은 바로는 동양화학을 다니거나 근처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학익동 인하대 옆쪽으로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네 많이 살았죠.

지원자: 거기 모습은 어땠어요? 학익 시장이라든가

구술자: 학익 시장은 모르겠고 그 앞에 공장이 많았고, 좀 좋지 않은 뭐도 있었죠. 그 뭐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고. 주위에 우범지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많이 개발돼서 아주 깨끗한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하대 앞에도



공장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지원자: 그럼 인하대학교 졸업생들도 그 맞은편 회사에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취직을 꽤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구술자: 글썄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원자: 들으신 건 없고

구술자: 네 근데 인하대학 졸업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뭐. 아주 빛을 본 것보다는 그래도 먹고 살 정도.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부동산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지 제가 지금까지 그거(화학회사 근무) 했었으면은 집이나 겨우 하나 장만했을 정도 같아요.

지원자: 그 시절에도 전공 살려서 직업 삼기는 쉽지 않았군요.

구술자: 그런 것 같아요.

지원자: 운동은 그때 어땠어요? 지금은 인하대학교 배구부도 유명하거든요.

구술자: 그때도 별로였던 것 같아요.

구술자: 인천에서 그래도 인하대학을 많이 갔잖아요. 실력들은 좋았죠.

지원자: 요즘은 보면 외국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구술자: 그래요.

지원자: 아무래도 학생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일정량의 학생 수가 필요하잖아요.

구술자: 그렇죠.



지원자: 그래서 유학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구술자: 그래요?

지원자: 그래서 학교 주변에 원룸촌도 많잖아요. 거기 보면 외국 학생들 진짜 많아요.

구술자: 그렇군요.

지원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좀 시절이 많이 바뀌었구나. 인천이 글로벌화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축소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해요

구술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외국 유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지원자: 없으면 안 돌아가요. 아예 학교가. 그나마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이 접근하기 되게 좋잖아요. 인천에서 바로 가까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학교, 지금 외국 학생들 숫자를 점점 늘리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도 또 새로 짓고 있고, 아무래도 외국 학생들 받으려면 기숙사가 있는 편이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어요. 기숙사를 지으면 학생들이 이제 방을 안 얻을까 봐 한참 막 좀 티격태격 했어요. 근데 결국은 착공 시작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졸업을 하는데 맞은편에 일할 수 있는 곳은 자꾸 없어지니까, 다 어디로 가서 일하나. 인천은 와서 잠만 자고, 일해서 돈 버는 건 서울 가고 수원 가고. 이런 데 가서 돈 벌고 하면 우리가 이 세수를 다 어떡할 건가. 베드타운이 돼가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구술자: 그렇겠네요.

지원자: 저도 어렸을 때, 기억 못하는 나이 때지만 가끔 아빠 회사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한국 강관 회사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빠 자전거 뒤에 타고서 갔던 기억이 나요. 저 아주 어릴 때니까. 냄새 났던거 기억하고요. 어느 회사의 냄새인지는 알 수가 없죠. 회사가 너무 많았으니까. 어느 때는 비가 오고 나서 갔던 거 한 번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비만 오면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폐수를 몰래 몰래 버린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얘기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구술자: 저기에서 나오던 폐석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오래 놔두면 굳어서 해가 없는데. 그걸 지금 웅진군청 있는 데 있죠. 그 근처에 많이 쌓아 놔졌거든요. 실제 그냄새 난다든지 이런 건 없는데, 거기에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폐자재다 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지원자: 제품이 100% 다 생산되지는 않고 폐기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구술자: 그 앞에 매립했잖아요. 저기 저수지 이쪽 있죠. 지금 웅진군청 앞에 가는 쪽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들어간 데요. 그쪽으로

지원자: 그렇게 매립을 해도 환경에 특별히 유해가 되진 않아요?

구술자: 나중에 공기하고 섞이면은 나중에 중화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성분을 정확히는 기억을 못해요.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원자: 어릴 적 기억 중에 어느 회사 앞이었는데 뒤였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색깔이 엄청 예뻐던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약간 옥색빛, 우유에다가 옥색빛 타놓은 것 같이.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봤나 아빠한테 물어봤나 저기 뭐냐고 그랬더니 이 공장에서 나온 거라고, 보기에선 예쁜데 위험한 거라고 하셨었어요

구술자: 맞아요. 그게 성분은 뭘지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에도 아마 몸에는 좋지 않은 폐수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지원자: 그럼 그게 이제 수분이 다 증발되고 밑에 가루가 가라앉은 거를 거기다 다 매립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술자: 그 폐기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거기다 쌓아 놓은 거죠. 쌓아놔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공기하고 반응하면서 굳어져요. 굳어져서 그게 거의 중성화, 산성이든 알카리성이든 간에 중성화가 돼서 이제 별로 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원자: 그러면 이 회사가 여기서 빠져나갈 때 그런 정화 작업 같은 거 다 하고 그리고 가셨을 거 같아요.

구술자: 그거 안했을 거예요.

지원자: 근데 그거 안 하고 그 위아래가 이렇게 집을 지어도 안전한가요?

구술자: 안전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철근 박았다고 해서 철근이 썩는다든지 그건 없어요.

지원자: 여기가 또 가뜩이나 매립지니까 아무래도 지대가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을 것 같고.

구술자: 근데 송도 있죠. 신도시 거기 다 그러니까 더 하죠. 아암도 있죠. 아암도. 송도에서 지금 아암도. 거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다 바다 아니에요.

지원자: 그래서 기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넓은 땅을 다 이렇게 매립해 갖고 땅으로 만들고. 높은 건물을 짓고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구술자: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제일제당 있잖아요. 그 앞에 낙섬이라고 있어요. 낙섬까지 쪽 가면은 거기서 망둥이 낚시를 했었어요. 거기 망둥이 낚시 잘 됐죠. 그리고 그 연안부두까지 막을 때 거의 다 따라 나가서 낚시했던 기억이 나요.

지원자: 그럼 그렇게 점점 매립되어 가는 과정도 보신 거예요.

구술자: 그렇죠.

지원자: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본 것 같아요. 아암도를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약간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말을 들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모습을 창작하는 건지 진짜 기억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술자: 제가 기억나는 게요. 지금 동양화학 한참 앞에 있죠. 앞에 말뚝을 쪽 박아서 그물을 쳐놔요. 쳐놓으면 그 그물에 꽃게 같은 게 이렇게 걸려요. 나가다가 송어도 걸리고. 그리고 꽃게가 이제 걸리다가 나무 밑에 숨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다 따가고 나면은 꽃게가 어떻게



하나면 그 기둥 밑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뽠뽠 나와요. 그러면 이런 막대기로 있죠. 푹푹 보면 이런 소리가 나요. 나면 파 보면 꽃게가 있어요. 그거 한 다섯 마리만 잡으면 아주 실컷 먹죠.

지원자: 컷어요. 꽃게가.

구술자: 컷죠. 언제냐면은 그 꽃게가 맛있을 때가 5월 달하고 6월 초가 맛있어요. 그때 이렇게 잡으면 아주 살이 알차고 맛있어요.

지원자: 알고 잡으러 가시는 분도 있었겠다.

구술자: 그렇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아요. 하다못해 옛날에 송도유원지 있잖아요. 거기서 아암도라고 송도 유원지에서 나가면 그쪽으로 갯벌이 있어요. 거기 가면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은 대합이 있죠. 조개를 키웠어요. 낚시하면서 칼을 하나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대합 있죠. 큰 걸 한 개 까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 한 10개만 먹으면 배불러요.

지원자: 생으로요.

구술자: 대합은 바로

지원자: 대합은 제가 알기로 모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술자: 그래서 그걸 까서.

지원자: 잘 하셨겠죠. 바닷가에서 사셨으니까.

구술자: 그 대신 잘못하면 관리원한테 터지죠. 그러니까 그걸 해서 꼭 땅에다 묻어야 돼.

지원자: 먹고 껍데기는 묻고. 인멸하시고

구술자: 증거 인멸을 해야죠.



지원자: 저 어릴 때 또 기억 중에 하나가, 어딘지 위치는 모르겠는데 낚시하러 간 곳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같이 낚시하러 다녔거든요. 오빠랑 아빠는 낚시를 하고 계시고, 언니랑 저랑은 어떤 아저씨가 뭘 자꾸 이렇게 쭈그러서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나 봤더니 속이라는 걸 잡으시더라고요. 갯가재 같이 생긴거. 그거를 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뭤로 잡았냐면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강아지 풀을 꺾어 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하니깐 속이 나오죠. 개를 확 붙잡더라고요. 쑥 잡아당기니까 개가 나오는 거예요.

구술자: 예. 예. 맞아요.

지원자: 그래갖고 많이 잡았어요. 평평한 돌 밑에다가 나무 주위다가 볼 땐 다음에 개를 이렇게 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거기서 구워 먹었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어디쯤인지 아세요?

구술자: 그게 동막이라고 하는 데일 거예요. 동막.

지원자: 그렇게 멀어요.

구술자: 저기 송도에서 저쪽으로 쪽 나가면.

면담자: 그러면은 저 뒤에 사진을 기점으로 해서 저기 새인천 풀장은 대충 어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구술자: 이쪽 앞쪽으로.

면담자: 앞쪽이고. 한참 앞쪽이고. 그럼 그 앞에 저수지처럼 이렇게 물 가둬놓는.

구술자: 그건 더 앞쪽이고

면담자: 그건 더 앞 쪽이고요. 러면 한참 갔어야 되는 거구나.

구술자: 예. 거기서 한 4~500m 갔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갯벌만 60만 평이에요. 꽤 컸죠.



지원자: 말만 들어서는 60만이라는 게 이렇게 가늠이 안 돼요.

구술자: 이걸 아니고 매립지만 60만 평

지원자: 공장 부지 빼고요.

면담자: 그럼 총 한 80만 평 되는 게 맞는 것 같네.

구술자: 아니요. 이걸

면담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술자: 10만 평은 안 되고 이 공장은 한 2~3만 평 그게 제일 큰 거죠.

지원자: 그럼 그 60만 평을 일부 팔아가지고 지금 다른 회사들이 들어온 거였던 거예요.

구술자: 소유는 아마 그게 동양 oci거로 돼 있을 거예요. 법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양화학이 그걸 매립을 했으니까 소유권을 가졌겠죠. 그 oci가 동양화학이, 그 많은 땅을 아마 소유했을 거예요. 해서 지금 oci가 아주 알부자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군산에 공장도 있고 꽤 크죠.

지원자: 인천에 어쨌건 큰 이바지를 했네요. 인천에 이 동양제철이 경제적으로든 뭐든 큰 이바지를 한 것 같아요.

구술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원자: 연구실에서의 사고 말고 이 동양화학 회사 자체 내에서는 사고 같은 건 없으셨어요?

구술자: 저희 근무할 때는 없던 것 같아요.

지원자: 관리를 되게 잘했나 보다.

구술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석탄이라든지 석회석 섞는 과정에 있죠. 과정에서 그걸 섞어서



이렇게 투하할 거예요. 투하할 때 거기서 뭐 크게 문제 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 열을 많이. 타워에서 열을 많이 발생되니까 당시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가 했던 게 석탄을 뺄잖아요. 뺄으면 이제 조크러셔라고 해서 여기 기계에 큰 쇳덩어리를 갖다가 넣고서 쿵 하면 뺄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탄이나 석회석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실험하면, 그 유리 만들려면 시리카라는 게 있어요. 옛사이라고 하죠. 옛사이 같은건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하려면은 기계가 있어요. 조크러셔이라 해서 그걸 다 해서 유발이라고 해서 그걸 다 뺄던 기억이 나요.

면담자: 더 얘기해 주실 거는 이제 없으신가요

구술자: 예 없습니다.

면담자: 그러면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날도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구술자: 고맙습니다.

면담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술자: 네 감사합니다.